

11-22 (통권 제 492호)

2011. 6. 24.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VIP REPORT



■ 산업 경기 경착륙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 2011년 하반기 주요 산업 전망



現代經濟研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원, 장후석,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23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3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산업 경기 경착륙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 2011년 하반기 주요 산업 전망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2011년 하반기 산업 경제의 특징 6

3. 시사점 15

【부록】 산업별 최근 경기 동향과 하반기 전망 18

① 조선업

② 기계산업

③ 자동차산업

④ 철강산업

⑤ 석유화학산업

⑥ 해운업

⑦ 물류택배업

⑧ IT제조업

⑨ 건설업

■ HRI 경제 지표 47

<산업 경기 경착륙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 2011년 하반기 주요 산업 전망>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

- (호황 지속) 석유화학, 철강, 기계, 자동차 등 수출 산업 호황 지속
- (경기 하강) 소비 둔화로 물류 성장 약화, 세계시장 위축으로 IT 경기 하강
- (회복 진입) 수출 경기 호조로 해운 경기 회복, 조선도 신규 수주 증가
- (불황 고착) 부동산 시장 침체의 장기화로 건설 경기 불황 지속

2011년 하반기 산업 경제의 특징

- **산업 성장세의 위축 - 산업 경기의 급격한 둔화 가능성 고조**
 - (생산 둔화) 逆 기저효과와 실제 경기하강 효과가 동시 작용
 - (재고 조정) 미래 불확실성으로 출하 둔화에 재고 소진으로 대응
- **부문간 불균형의 확대 - 산업·기업의 경기 양극화 진행**
 - (제조업-서비스업간 불균형) 서비스업의 상대적 저성장
 - (수출산업-내수산업간 불균형) 내수 산업 경기의 부진 가능성 증대
 -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균형) 중소기업 생산 증가세의 급감
- **수출 주도 산업의 변화 - IT 산업의 성장 견인력 약화**
 - (IT 수출 부진) 반도체 등 IT 주력 수출 부문 경기 급락
 - (IT 내수 시장 위축) IT 부문의 내수출하 감소세로 전환
- **건설업의 불황 장기화 - 불황 국면 탈출 가능성 희박**
 - (경기 동행 및 선행 지표의 동반 침체) 건설실적과 건설수주 모두 감소
 - (산업 심리 위축) 건설업 BSI 침체 지속

시 사 점

- 첫째, 내수 시장 수요의 확충을 통한 취약 부문의 경기 경착륙 방지
- 둘째,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흥 시장에 대해 적극적인 수출 진작 노력 경주
- 셋째, FTA 체결로 접근성이 높아진 유럽시장에 대한 지역차별화 수출 전략 요구
- 넷째, 일본 산업계의 위축을 계기로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글로벌 도약 추진
- 다섯째, 건설업 구조조정 촉진으로 업종 선진화와 고도화의 발판 마련

■ 2011년 하반기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

(호황 지속 산업) 2010년에 호황 국면에 진입했던 석유화학, 철강, 기계, 자동차 등 대다수 수출 산업들은 2011년에도 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예상보다 지속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중국 등 신흥시장의 고성장, 東일본 대진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반사 이익 등으로 수출 경기 호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회복 진입 산업) 한편 해운업은 전방 수출 산업들의 경기 호조로 빠르지는 않지만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0년 불황 국면에 위치했던 조선업도 신규 수주가 증가하면서 회복 국면으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경기 하강 산업) 그러나 소비 회복세의 둔화로 물류택배업과 같은 내수 의존적 산업은 경기가 다소 하강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IT 산업도 최근 반도체 패널 부문 수출이 일제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경기 상승세의 둔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불황 고착 산업) 대부분의 산업들이 회복 또는 호황 국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건설업만은 시장 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면서 2011년에도 불황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2011년 하반기 산업 경제의 주요 특징

(산업 성장세의 위축 - 산업 경기의 급격한 둔화 가능성 고조) 2011년 하반기 국내 산업 경기는 첫째, 상당수 산업의 경기 상승(확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0년의 고성장에 대한 역(逆) 기저효과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하강하는 바와 같이 실제 국내 경기 전반의 성장력이 약화되고 있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제조업 경기에 국한해서 보면 2011년 4월 현재 전반적인 경기는 호황 국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출하 및 재고 증가율이 모두 하락하고 있다. 이는 시장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재고 축소를 통해 시장 수요 위축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문간 불균형의 확대 - 산업·기업의 경기 양극화 진행) 둘째, 경제 내 제조업-서비스업간, 수출산업-내수산업간,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균형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서비스업간: 제조업 경기는 호조를 지속하는 반면 서비스업 경기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생산지수는 2010년 하반기 이후 전년동기대비 10% 내외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3%내외에 머물고 있다. 특히 2010년 말 이후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경제심리(BSI)의 차이도 확대되고 있어 향후 디커플링 폭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출-내수 산업간: 수출산업은 고성장을 유지하나 내수산업은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출하 증가율이 내수출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4월 현재 수출·내수 출하 증가율간 격차는 약 12%p에 달하고 있다. 특히 2/4분기에 들어 내수 기업 체감 경기가 수출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수 시장 의존성이 높은 중소기업 경기가 더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4/4분기 중소기업의 생산 증가율은 12.4%로 대기업의 11.9%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1/4분기에는 대기업 생산 증가율이 11.3%, 중소기업 생산 증가율은 9.5%로 중소기업 생산 증가율의 빠른 둔화가 관찰되고 있다.

(수출 주도 산업의 변화 - IT 산업의 성장 견인력 약화) 셋째, 경제 성장과 수출을 견인하던 IT 산업이 향후 내수와 외수 시장 모두의 수요 둔화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 IT 업종들의 최근 수출 증가율이 20%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IT 산업은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업종들을 중심으로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다른 제조업종의 내수 출하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IT 산업의 내수 출하는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어 내수 시장에서도 IT 산업이 고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설업의 불황 장기화 - 불황 탈출 가능성 희박) 넷째, 건설업은 시장구조적 문제로 불황 국면에서 탈출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 건설경기 동향지표와 선행지표가 모두 부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 건설기성액(불변기준)이 건축과 토목 부문 모두에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도 감소하고 있다. 특히 BSI(한국은행의 업황전망)로 살펴본 건설업의 체감경기 지표들도 전산업에 크게 못 미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최소한 하반기중 건설 경기 회복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 시사점

첫째, 내수 시장 수요의 확충을 통해 경제 내 취약 부문의 경기 경착륙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상대적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흥 시장에 대해 적극적인 수출 진작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FTA 체결로 접근성이 높아진 유럽 시장에 대해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수출 전략이 요구된다. **넷째,**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일본 산업계의 위축을 최대한 이용하여 국내 부품·소재 기업들은 글로벌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장기 불황에 빠져 있는 건설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업종 선진화와 고도화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1. 개 요

○ 최근 국내 경기 동향

- (경제성장률) 2010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8.5% 이후의 성장률 둔화 추세가 이어져 2011년 1/4분기에는 4.2%를 기록
- (소비) 민간소비는 내구재 소비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하는 데에 불과
- (투자) 설비투자는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건설투자는 침체를 시현
 - (설비투자) IT, 자동차 등의 부문이 호조를 보여 전년동기대비 11.7% 증가함
 - (건설투자) 건축, 토목 등 모든 부문이 침체되며 전년동기대비 11.9% 감소함
- (수출)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대비 16.8% 증가하며 호조세를 지속
 - 수입은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수입이 크게 늘면서 전년동기대비 13.7%의 증가율을 기록함

< 분기별 국민계정 주요 지표 추이 >

(단위: 전년동기대비, %)

	연간	2010				2011
		1/4	2/4	3/4	4/4	1/4
경제성장률	6.2	8.5	7.5	4.4	4.7	4.2
총소비 증가율	3.9	5.9	3.4	3.4	3.0	2.5
민간소비 증가율	4.1	6.6	3.5	3.6	2.9	2.8
정부소비 증가율	3.0	3.4	2.9	2.5	3.2	1.5
총투자 증가율	15.4	24.6	23.7	12.0	5.2	-2.1
건설투자 증가율	-1.4	4.3	-2.3	-3.1	-2.9	-11.9
설비투자 증가율	25.0	29.1	30.5	26.6	15.9	11.7
수출 증가율	14.5	16.7	14.5	11.6	15.7	16.8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2011년 1/4분기 국민소득 6월 8일자 보도자료 기준).

○ 2011년 대외 경제 전망¹⁾

- (세계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글로벌 경기 하강 위험의 증가하고 있어 2011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4%에서 4.3%로 0.1%포인트 하향조정함

- (경기 하방 위험 증가) IMF는 유럽 주변국 재정 위기, 미국경제 회복 지연, 원자재가 상승, 개도국 경기 과열 등의 하방 위험이 있음을 언급함
 - 유럽 주변국 재정 위기: 지난 4월 전망 시점 이후 남유럽 등 유럽 주변부(periphery) 국가의 금융 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미국경제 회복 지연: 미국 경제의 회복이 차질(setback)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함
 - 원자재가 상승: 국제 원자재가 상승 리스크는 4월 전망 시점보다는 약화되었으나, 중동의 불안정으로 인한 석유 가격 상승, 기상 악화에 의한 농산물 가격 급등의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언급함
 - 개도국 경기 과열: 신흥 시장의 경기 과열(overheating)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긴축정책이 전개되지 않으면 경착륙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경고함

- (주요국 전망) 선진국 성장세 둔화, 신흥 개도국 고성장의 세계 경제의 양극화 예상
 - 미국: 고용 시장의 회복세 미흡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전망치인 2.8%에서 2.5%로 0.3%포인트 하향조정함
 - 유럽: 유럽 주변부 국가들의 금융 불안에도 불구하고 유럽 경제를 이끌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의 경제 회복세 강화로 유로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1)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 Mild Slowdown of the Global Expansion, and Increasing Risks」 (2011년 6월)의 전망 자료에 근거함.

산업 경기 경착륙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1.6%에서 2.0%로 0.4%포인트 상향조정함

· **일본:**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올해 일본 경제성장률은 기존 1.4%에서 -0.7%로 2.1%p를 하향조정함

· **신흥개도국:** 신흥개도국의 2011년 경제성장률은 기존 6.5%에서 6.6%로 소폭 상향조정하였으며 당초 예상하였던 바와 같은 견고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신흥개도국 중에서는 브라질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기존 4.5%에서 4.1%로 0.4%포인트 낮아지는 반면, 러시아(4.8%), 인도(8.2%), 중국(9.6%) 등의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를 유지함

- (세계 교역 전망) 선진국들의 경기 확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을 중심으로 개도국들의 고성장세가 지속되면서 2011년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기존 7.4%에서 0.8%p 상향조정된 8.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IMF의 주요 지역 및 국가의 경제성장률 전망 >

(%)

	2009	2010	2011(E)		
			'11.1월 전망	'11.4월 전망	'11.7월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	-0.5	5.1	4.4	4.4	4.3
선진국	-3.4	3.0	2.5	2.4	2.2
미 국	-2.6	2.9	3.0	2.8	2.5
유로지역	-4.1	1.8	1.5	1.6	2.0
일 본	-6.3	4.0	1.6	1.4	-0.7
개발도상국	2.8	7.4	6.5	6.5	6.6
중 국	9.2	10.3	9.6	9.6	9.6
러 시 아	-7.8	4.0	4.5	4.8	4.8
브 라 질	-0.6	7.5	4.5	4.5	4.1
인 도	6.8	10.4	8.4	8.2	8.2
세계 교역량증가율	-10.8	12.4	7.1	7.4	8.2

자료: IMF.

○ 2011년 하반기 국내 경제 전망²⁾

- (경제 성장) 2011년 한국 경제 하반기 4.7%, 연간 4.3% 성장 예상 : 하반기 4.7%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나 세계 경제 회복세 약화와 내수 둔화 등으로 2011년 경제성장률은 연간 4.3%로 전년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소비는 낮은 증가세 지속 : 하반기에는 고용시장 소폭 둔화, 실질소득 회복 지연, 소비심리 정체 등으로 성장률보다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설비투자 증가 폭 둔화 : 수출 증가 지속 등 투자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공공부문 기계수주 부진 등으로 하반기에 증가 폭은 둔화될 전망이다
 - 건설투자는 하반기 소폭 반등 : 전년동기의 침체에 대한 기저효과로 하반기 건설투자 증가율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대외거래) 경상수지 흑자 규모 축소 :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나 수입 증가폭이 수출 증가폭을 상회하여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축소될 전망이다
 - 견조한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지속적인 수요증가로 수출 증가 예상. 한편, 기저효과로 '상고하저' 현상이 나타나 하반기 수출 증가율은 축소되어 2011년 수출 증가율은 16% 내외 전망이다
 - 한편,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 수입 의존적 수출 구조 등으로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2011년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각각 310억 달러, 170억 달러로 흑자는 지속되나 흑자폭은 2010년 대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물가·고용) 인플레이 압력 완화 속, 고용 시장 양적 지표 개선이 전망
 - 물가는 상승폭 축소 : 하반기 소비자물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 상승

2) 현대경제연구원 (2011. 6. 20.) "2011년 하반기 경제 전망과 정책 과제 - 확대균형적 내수 활성화 정책 시급", 경제주평 11-23 (통권 450호) 참조.

요인이 있으나 기준금리 인상, 내수 약화, 원화 절상 등으로 상반기 대비 상승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고용은 양적 지표 개선 :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나 하반기에 수출 호조세 등의 영향으로 실업률은 상반기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금융시장) 원화 강세(환율 하락)가 예상되며 시중금리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 환율 하락세 지속: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 경상수지 흑자 지속, 국내 경제 성장세에 따른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 금리인상 등으로 2011년 하반기에도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절상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시중금리는 소폭 상승 : 시중 금리 상승 압력이 높으나 가계부채, 유럽 재정 위기 재부각 등 대내외 불안 요인으로 상승폭은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 2011년 하반기 국내 경제 부문별 전망 >

구 분		2009	2010			2011(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0.3	8.0	4.5	6.2	3.9	4.7	4.3	
	민간소비 (%)	0.0	5.1	3.3	4.1	3.4	4.0	3.7	
	건설투자 (%)	3.4	0.4	-3.0	-1.4	-6.4	4.8	-0.8	
	설비투자 (%)	-9.8	29.8	21.0	25.0	9.0	8.0	8.5	
대 외 거 래	통 관 기 준	경상수지 (억 \$)	328	91.2	190.9	282.1	75	73	148
		무역수지 (억 \$)	405.0	175.4	236.4	412.0	172.2	137.8	310
		수출(억 \$)	3,635	2,214	2,450	4,664	2,679	2,755	5,434
		증가율 (%)	(-13.9)	(34.3)	(23.3)	(28.3)	(21.0)	(12.4)	(16.5)
		수입(억 \$)	3,231	2,038	2,214	4,252	2,507	2,617	5,124
		증가율 (%)	(-25.8)	(40.2)	(24.6)	(31.6)	(23.0)	(18.2)	(20.5)
소비자물가 (평균, %)		2.8	2.6	3.3	2.9	4.3	3.8	4.0	
실업률 (평균, %)		3.6	4.1	3.4	3.7	3.9	3.3	3.6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276	1,143	1,165	1,156	1,092	1,050	1,070	
국고채 수익률(3년)		4.0	3.9	3.5	3.7	3.8	4.4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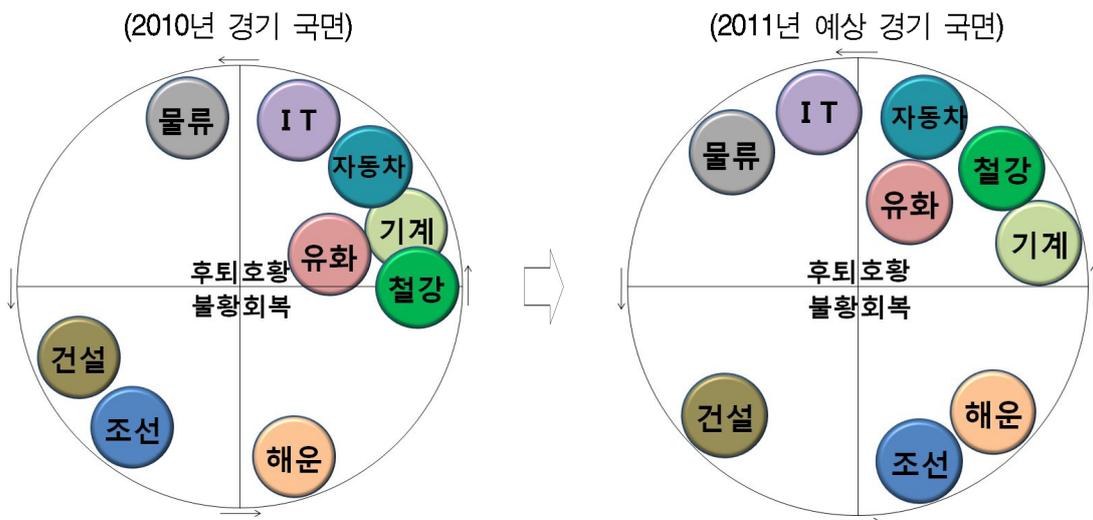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2. 2011년 하반기 산업 경제의 특징

(1)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

- **(호황 지속 산업)** 석유화학, 철강, 기계, 자동차 등의 주력 산업은 신흥시장의 고성장 지속, 東일본 대진에 따른 반사 이익 등으로 수출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
- **(경기 하강 산업)** 소비 회복세의 둔화로 **물류택배업**은 경기 하강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며 **IT 산업**도 반도체, 패널 부문 등의 부진으로 경기 상승세의 둔화가 전망
- **(회복 진입 산업)** 해운업이 2010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조선업도 신규 수주가 소폭 증가하면서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불황 고착 산업)** 건설업은 2011년에도 시장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면서 불황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주요 산업의 경기 국면 >



(2) 2011년 하반기 산업 경제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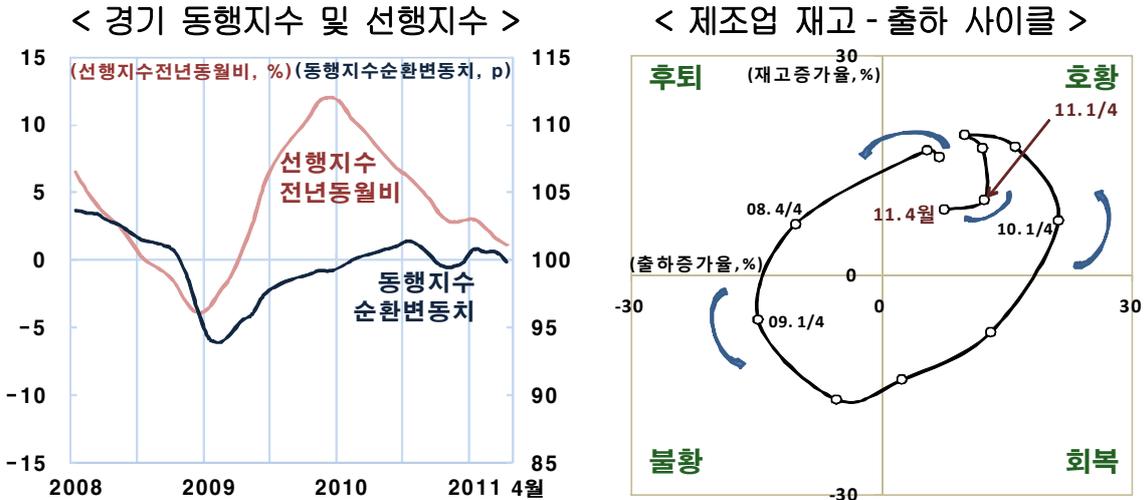
① 산업 성장세의 위축 - 산업 경기의 급격한 둔화 가능성 고조

○ (전반적인 경기 하강) 2009년 말 이후 선행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동행지수도 2011년 초 이후 하락세로 전환

- 선행지수(전년동월비)는 2009년 12월 12.0%에서 2011년 4월 현재 1.1%로 하락세를 지속중이며 상승 전환 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2011년 1월 100.8에서 4월 현재 99.9로 하락하면서 경기 하강 국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시장 수요 둔화와 재고 조정) 4월 현재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는 호황 국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출하 및 재고 증가율이 모두 축소되고 있어 하반기 일부 업종의 경우 경기 후퇴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대두

- 제조업 출하 증가율은 2011년 1월 전년동월대비 15.2%에서 4월 7.5%로 하락하였으며,
- 제조업 재고 증가율도 같은 기간 전년동월대비 13.0%에서 9.0%로 하락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나타냄
- 이는 기업들이 출하 정체 현상에 대하여 생산 확대보다는 재고의 소진을 통해 시장 수요 축소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② 부문간 불균형의 확대 - 산업·기업의 경기 양극화 진행

○ 제조업 - 서비스업간 불균형

- (서비스업의 상대적 부진)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생산 증가율 격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제조업 호조) 제조업 생산지수는 2010년 하반기 이후 전년동기대비 10% 내외의 증가율을 유지하다가 4월에 들어 6.9%로 소폭 낮아짐
- (서비스업 부진)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소비 등 내수 부진으로 2010년 하반기 이후 최근까지 증가율이 3% 내외의 미약한 수준을 기록함
- 서비스업 전반의 생산 증가율이 미약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소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이 상대적으로 부진할 가능성이 높음

※ 도소매업생산증가율: '10년 4/4분기 4.7%에서 '11년 1/4분기 3.9%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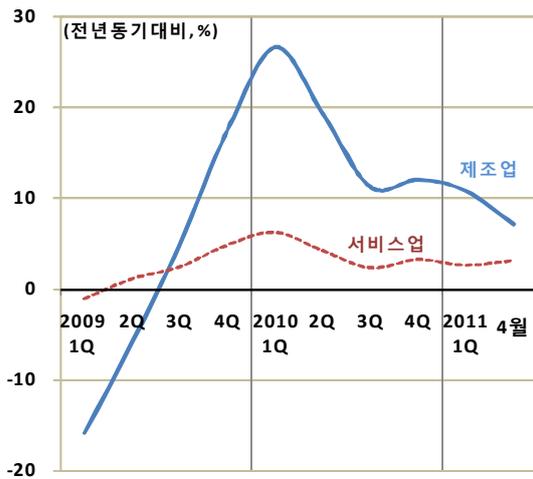
※ 음식숙박업생산증가율: '10년 4/4분기 1.7%에서 '11년 1/4분기 -0.6%로 하락

- (경제 심리 격차 확대) 2010년 말 이후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BSI 차이가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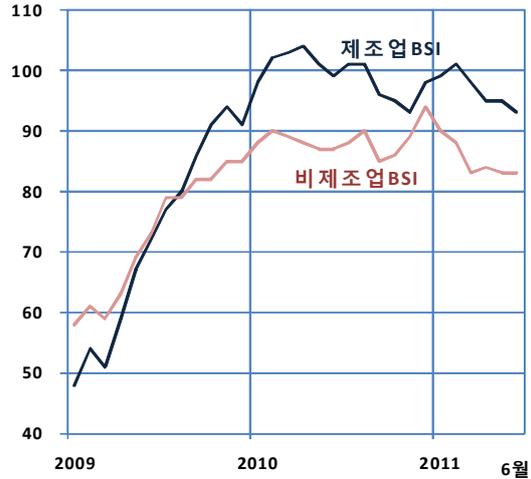
대되는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제조업 BSI와 비제조업 BSI간의 격차는 2010년 12월 4p로 축소되기도 하였으나, (제조업 BSI 98, 비제조업 BSI 94)
- 2011년 2월 이후에는 10p 이상을 기록(6월 제조업 BSI 93, 비제조업 BSI 83)

< 주요 산업 생산 및 기성 증감률 >



< 주요 산업 BSI(한국은행, S.A.) >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건설경기동향조사, 한국은행 기업경기실사지수.

- 주: 1) 건설업은 건설기성액은 불변 기준
- 2) BSI는 계절조정 업황 전망.

○ 수출산업-내수산업간 불균형

- (수출 및 내수 시장의 수요 격차) 제조업 내에서도 수출 부문과 내수 부문의 양극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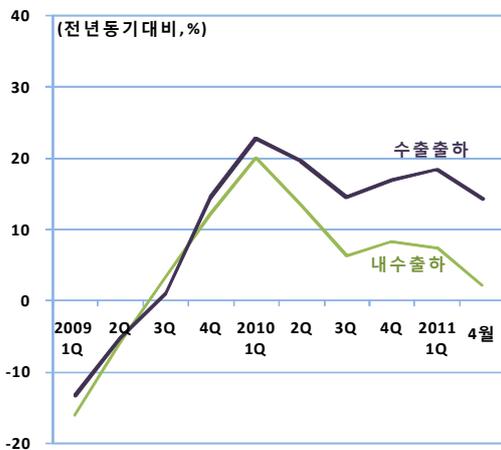
- 제조업의 수출 출하 증가율과 내수 출하 증가율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중
- 2011년 4월 현재 수출·내수 출하 증가율간 격차는 약 12%p에 달하고 있음

- (수출 및 내수 기업 전망의 디커플링) 2011년 2분기에 들어 내수 기업 체감 경기가 수출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남

- 전경련 BSI를 보면 2011년 1/4분기의 경우 내수 부문의 체감 경기가 수출 부

- 문을 상회하였으나, 2/4분기에 들어서서는 이러한 관계가 역전됨
- 한은 BSI의 경우 내수 기업의 체감 경기가 수출 기업을 하회하는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 상의 BSI를 보면 2010년 4/4분기에 내수 부문 BSI가 수출 부문의 BSI를 상회하였으나 2011년 2/4분기에는 내수 부문이 수출 부문을 하회함

< 수출 및 내수 출하지수 증감률 >



< 수출 및 내수 BSI >3)

		2010				2011	
		1Q	2Q	3Q	4Q	1Q	2Q
전경련	수출	113.2	107.1	108.6	105.4	111.7	107.2
	내수	120	111.2	113.9	110.9	122.6	105.8
한은	수출	104	107	108	93	97	98
	내수	99	102	101	90	94	96
상의	수출	112	116	116	113	111	119
	내수	107	122	118	115	105	114

자료: 통계청, 전경련,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주: 전경련과 한은 BSI는 해당 분기의 말월 수치임.

○ 대기업 - 중소기업간 불균형

- (대-중소 기업간 생산 증가율 격차) 2011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 증가율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2010년 4/4분기 중소기업의 생산 증가율은 12.4%로 대기업의 11.9%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함
 - 그러나 2011년에 들어 1/4분기에는 대기업 생산 증가율이 11.3%, 중소기업 생산 증가율은 9.5%로 역전됨(4월에도 대기업 8.4%, 중소기업 3.6%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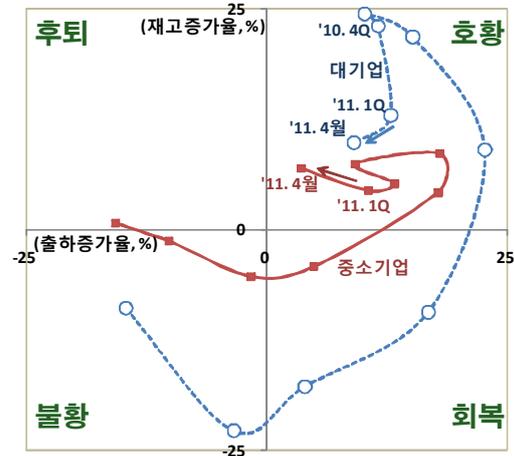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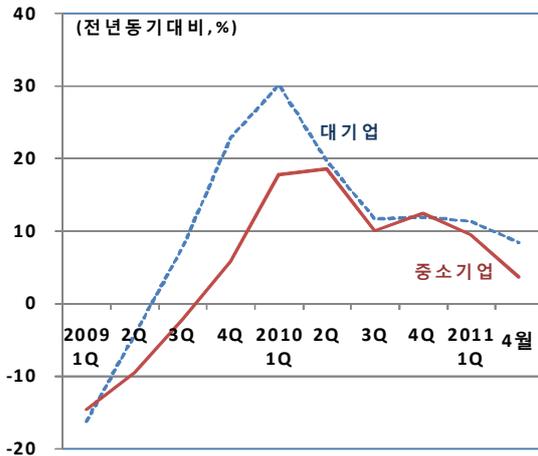
3) 전경련 BSI는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경기조사 중 전산업의 수출과 내수 항목 전망, 한은 BSI는 한국은행 기업경기실사지수 중 제조업내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업황전망, 상의 BSI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경기전망조사 중 제조업의 수출과 내수 항목 전망임.

· 특히 2010년중 장기불황 업종이었던 건설업과 조선업의 경우 중소기업은 자금난까지 가중되어 어려움을 지속하고 있음⁴⁾

- (중소기업의 호황 국면 종결 가능성 대두) 재고출하 사이클상 향후 대기업은 호황 국면이 지속되고 중소기업은 후퇴 국면으로 진입하는 경기 양극화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

· 중소기업의 출하증가율이 더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이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내수시장 위축세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기업 · 중소기업 생산 증가율 > < 대기업 · 중소기업 재고 - 출하 사이클 >



자료: 통계청 광업 · 제조업동향조사.
주: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③ 수출 주도 산업의 변화 - IT 산업의 성장 견인력 약화

○ IT 수출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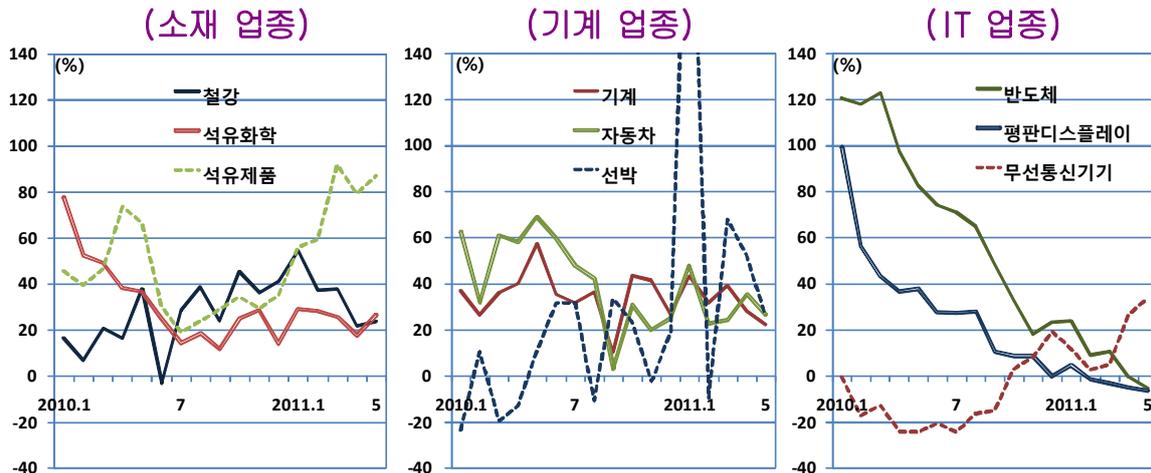
- 소재 및 기계 업종들의 최근 수출 증가율(전년동월대비)은 최소 20%를 모두 상회하고 있음

4) 해외 건설 비중이 높은 대형 건설사에 비해 국내 주택시장 위주의 중소 건설업체가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전반적인 조선업 경기는 회복세이나 이는 대형조선사에 국한된 것이며 중소형조선사는 여전히 불황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반면 IT 산업은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업종들을 중심으로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반도체 수출⁵⁾은 2011년 4월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5월에도 5.3% 감소함
- 평판디스플레이 수출은 2011년 5월 전년동월대비 6.3% 감소함
- 무선통신기기중 피쳐폰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5월 전년동월대비 약 46% 감소)하였으나, 스마트폰에 대한 수출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5월 전년동월대비 약 323% 증가⁶⁾)

< 주력 9대 수출 품목의 수출증감률 추이(전년동월대비) >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지식경제부 통계자료를 이용한 자체 계산.

주: 1) 2011년 5월은 5.1~20일 잠정치 기준.

2) 품목별 MTI 코드는 철강(61), 석유화학(21), 석유제품(133), 일반기계(71, 72, 75, 79), 자동차(741), 선박(746), 반도체(831), 평판디스플레이(8361), 무선통신기기(812).

○ IT 내수 시장 부진

- 제조업 전체의 내수출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 2010년 월평균 12.2%에서 2011년 1~4월중 6.2%(4월 2.2%)로 둔화됨

5) 2011년 1~5월중 IT 수출 비중 28%(반도체 9%, 액정디바이스 5%, 무선통신기기 5%).

6) 2011년 5월중 스마트폰 수출액은 12.5억 달러, 피쳐폰 수출액은 3.8억 달러.

- 그러나 IT 산업의 내수 출하 증감률이 다른 제조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IT 산업(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내수 출하 증감률은 2010년 월평균 16.8%로 제조업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2011년 1~4월중 월평균 2.3%로 제조업 평균을 하회함
- 특히 IT 산업의 3월과 4월의 내수 출하 증감률은 각각 -3.0% 및 -1.4%로 침체되는 모습임

④ 건설업의 불황 장기화 - 불황 국면 탈출 가능성 희박

○ 건설수주 감소세 지속

- (건설기성 실적 감소) 건설경기 동향지표인 건설기성액(불변기준)이 모든 부문에서 감소함

- 전체 건설기성 증가율은 올해 들어 10%내외의 감소폭을 기록하면서 불황 국면이 장기화되는 모습임⁷⁾
- 특히 부문별로도 건축 부문과 토목 부문 건설기성액 증가율이 올해 1/4분기에 들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음

- (건설수주액 감소)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건설 경기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2011년 1~4월 전체 건설수주액은 20.7조 원으로 전년동기(2010년 1~4월)의 23.3조 원 대비 약 11% 감소함
- 부문별로 보면 2011년 1~4월중 민간 부문 건설수주액이 15.2조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2% 증가하였으나,
- 공공 부문 건설수주액이 5.5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4%나 감소하여 공공 부문 수주 감소폭이 민간 부문 수주 증가폭을 크게 상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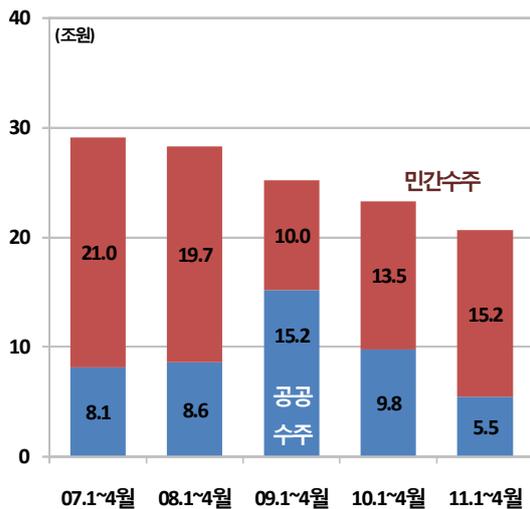
7) 건설기성액(불변기준) 증가율은 '【부록】 산업별 최근 경기 동향과 하반기 전망' 중 ④ 건설업의 2011년 1/4분기 경기 동향' 참조.

○ 건설업 경제 심리 지표 급랭

- 2010년 이후 건설업의 업황전망 BSI가 전산업 업황전망 BSI를 크게 하회하는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음
 - 2009년 한국은행의 업황전망 BSI를 살펴보면 전산업과 건설업의 격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10년 이후 전산업의 업황전망 BSI 는 월평균 91, 건설업 업황전망 BSI는 83으로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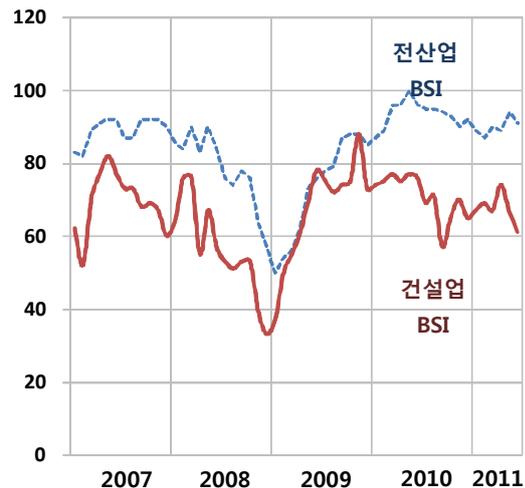
- 특히 2011년 4월 이후 건설업 업황 전망 BSI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최근 3개월 동안의 전산업의 업황전망 BSI는 4월 89, 5월 94, 6월 91로 90을 전후로 회복하는 모습임
 - 그러나 건설업 업황전망 BSI는 2011년 4월 74, 5월 67, 6월 61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음

< 민간 및 공공 부문 건설수주액 >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 전산업 및 건설업 BSI >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기실사지수.

4. 시사점

첫째, 내수 시장 수요의 확충을 통해 경제 내 취약 부문의 경기 정착률을 방지해야 한다.

- 하반기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 내수 산업, 서비스업에 대한 시장 수요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산업별 주력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세 감면, 금융 지원 확대 등의 보다 적극적인 수요 진작 노력이 요구됨
- 특히, 내수 경기가 부진할 경우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는 중소형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정부가 최근 예고하고 있는 전통시장 이용 시 세액 공제 확대, 공공 기관 및 기업의 문화집대비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공연·출판 등 문화상품 수요 확충 등의 내수 활성화 정책이 신속하게 가시화되어야 할 것임
 - 한편 휴가철을 맞이하여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해외 여행 수요를 국내 여행 수요로 대체시키기 위해,
 - 지자체, 중앙관련부처(문화관광부 등), 지역 사회 등이 참여하는 “지방 경제 활성화 추진 위원회(假稱)”를 만들어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기획함으로써 국내 소비 및 관광 수요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 한편, 정부 조달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 확대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우대 정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시장 수요 확충에 주력해야 할 것임

둘째, 상대적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흥 시장에 대해 적극적인 수출 진작 노력이 필요하다.

- 주력 수출 산업 경기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중국 등 신흥 공업국과 최근 유가 상승으로 다시 구매력이 높아진 중동, 중앙아시아 등 산유국에 대해 적극적으

로 진출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해당 시장에 대한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대기업·중소기업의 수출 공조 시스템 구축, 우리 기업들의 현지 유통·물류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지원 등 다각적인 마케팅 및 판로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임

셋째, FTA 체결로 접근성이 높아진 유럽 시장에 대해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수출 전략이 요구된다.

- 하반기 이후 선진국들의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있어 선진국 경제권에 대한 2011년 7월부터 발효되는 한-EU FTA로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기회를 충분히 살려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유럽의 통상 정책, 유럽 시장의 동향 등에 대한 민·관 및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공조화가 체계화되어야 함
- 특히 유럽 지역의 경제, 무역, 산업, 분업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역내 지역별 수출 및 투자 전략을 수립·추진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동유럽 지역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서유럽 지역으로 이동되는 역내 무역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 우선적으로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중간재 수출과 현지 조립 가공 산업 진출 등을 통한 서유럽 지역으로의 우회수출로 EU 역내 교역 프로세스에 편입하여 시장의 다양한 특성과 정보를 획득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임

넷째,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일본 산업계의 위축을 최대한 이용하여 국내 부품·소재 기업들은 글로벌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일본의 산업 생산 차질에 대응하여 세계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 점유율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세계 부품·소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산 제품의 공백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 부품·소재 산업이 글로벌 산업으로 도약하고 관련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임
 - 글로벌 부품·소재 수요 기업들에게 한국산 제품의 기술력과 조달 안정성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민·관 공동으로 부품·소재 박람회, 해외 전시회 등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함

다섯째, 장기 불황에 빠져 있는 건설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업종 선진화와 고도화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 건설업 경기의 불황이 장기화될 경우 그 부작용은 건설업 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시장을 거쳐 가계나 다른 산업으로 파급될 수 있음
- 향후 건설 경기 정책의 목표는 단기적인 경기 회복은 지양하고 건설업의 영세성과 후진성 극복을 통한 산업의 선진화, 고부가가치화, 고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임
 -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한계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하고 회생되어 산업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임
 - 건설업 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시장 자율 기능에 맡겨야 하나 그 진행이 더딜 경우, 부실 건설 기업, 관련 대출 금융 기관 등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 구조조정의 신속성을 확보해야 함
- 그러나 동시에 미분양 아파트의 다양한 용도 개발과 적정가 분양, 주택 매매 활성화 촉진 등 시장 공급과잉 문제도 해결하여 우량 기업들마저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은 방지해야 할 것임

【부록】 산업별 최근 경기 동향과 하반기 전망

① 조선업

고부가가치선박 건조능력이 있는 대형조선사들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2011년 1/4분기 경기 동향) 경기 침체 국면에서 회복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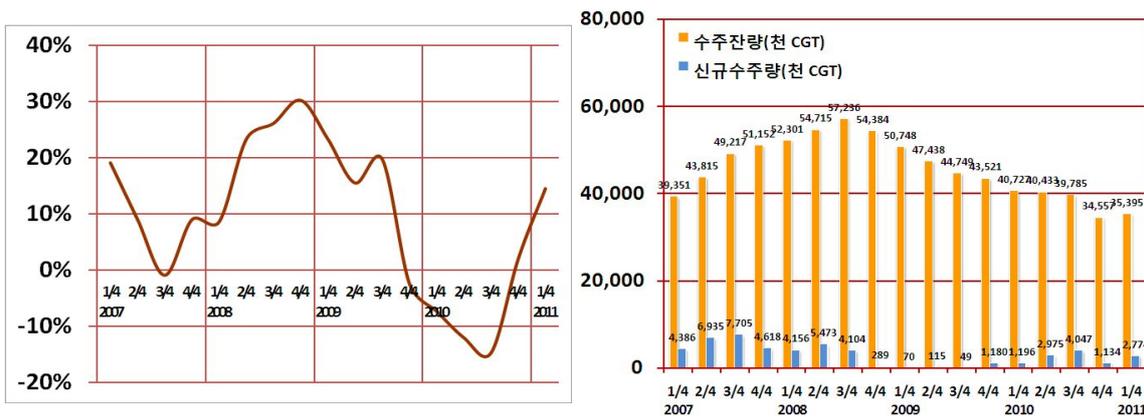
- (생산) 2010년 말 경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 회복 국면으로 진입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생산지수 증감률은 2011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14.5%로 2010년 4/4분기의 2.0%보다 크게 상승함

- (수주) 신규수주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주잔량은 여전히 낮은 수준

- 한국조선협회 9개 회원사의 2011년 1/4분기 신규수주는 2010년 4/4분기의 113만 CGT⁸⁾보다 늘어난 274만 CGT를 기록함
- 그러나 이 신규수주 규모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4분기의 770만 CGT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생산지수 증감률 > < 국내 조선 신규수주량 및 수주잔량 >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한국조선협회.

주: 1) 생산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 신규수주량 및 수주잔량은 9개 회원사 기준.

8) 표준화물선 환산 톤수 (Compensated Gross Tonnage).

○ (2011년 하반기 전망)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수주 및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수주량) 세계 경제 회복에 힘입어 2010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 2011년 1/4분기의 수주량은 277만 CGT로 2010년 1/4분기의 119만 CGT에 비해 약 132% 증가함
 - 1/4분기의 수주량 수준을 나머지 기간 동안 유지한다고 했을 경우 2011년 총 수주량은 1,100만 CG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건조량) 세계 경기 변화보다는 선사와 맺은 계약에 의거해 이행되기 때문에 2010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
 - 2011년 1/4분기 건조량은 304만 CGT로 2010년 1/4분기의 302만 CGT와 비교했을 때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임
 - 2011년 연간으로는 2010년 규모와 유사한 1,270만 CGT의 선박 건조 예상됨
- (수출규모) 그동안 수주했던 고부가가치 선박의 인도가 본격화되면서 수출은 2010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 2011년 1/4분기 수출규모는 160억 달러로 2010년 1/4분기의 95억 달러와 비교해서 70% 이상 증가함
 - 1/4분기의 수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1년 연간으로는 600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됨

< 조선업 전망 >

	2009	2010	2011(E)	
			2010년 11월 전망	2011년 6월 전망
수주량 (만 CGT)	141 (△90%)	815 (478%)	1,400 (72%)	1,100 (35%)
건조량 (만 CGT)	1,226 (△2%)	1,269 (3%)	1,300 (2%)	1,270 (0%)
수출규모 (억달러)	425 (4%)	467 (10%)	480 (3%)	600 (28%)

자료: 실적치는 한국조선협회(수주량, 건조량은 회원사 9개 합계 기준),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 (주요 현안) 조선업 내 구조조정 가능성, 그린쉽 수요 증대, 중국의 추격에 따른 성장 한계의 표면화 등이 전망
 - (조선업 내 구조조정 가능성 대두) 조선업의 호황이 대형조선사와 대형선박 위주로 진행되면서 중소기업체들의 구조조정 가능성이 증대
 - 전 세계적으로 4월 말 기준으로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선박인 드릴쉽은 21척(2010년은 5척) 그리고 LNG선은 14척(2010년은 5척)발주됨
 - 반면 5만 톤급 이하 석유화학 운반선은 한 척도 발주되지 않음(2010년 5척)
 - 이런 대형선박 위주의 발주 증가로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대형조선소들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중소조선소들은 어려움에 처함
 - (그린쉽 수요 증대) 세계 환경기구와 각국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대상에 선박이 포함되기 시작함에 따라 그린쉽(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
 -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선박용 엔진 개발이 핵심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청정연료 이용도 강구중임
 - 새로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수주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린쉽 설계기술의 확보는 중국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
 - (중국의 추격에 따른 성장 한계의 표면화) 한중일 수주 경쟁 격화로 국내 조선 산업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
 - 중국선박공업그룹(CSSC)이 미국 일본과 LNG운반선 4척을 건조계약을 체결해 LNG운반선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2010년 10월 자체 제작한 첫 번째 해상유전시추설비를 진수함으로써 중국은 한국과의 질적인 경쟁에도 돌입함
 - 과거의 조선강국 일본이 건재한 가운데 양적 그리고 질적인 현재의 선두주자 한국 그리고 이를 바짝 따라오는 미래의 조선강국 중국의 3대 공급국이 포진하고 있어 잠재적인 공급초과 상태가 예상됨

② 기계산업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선진국 시장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업종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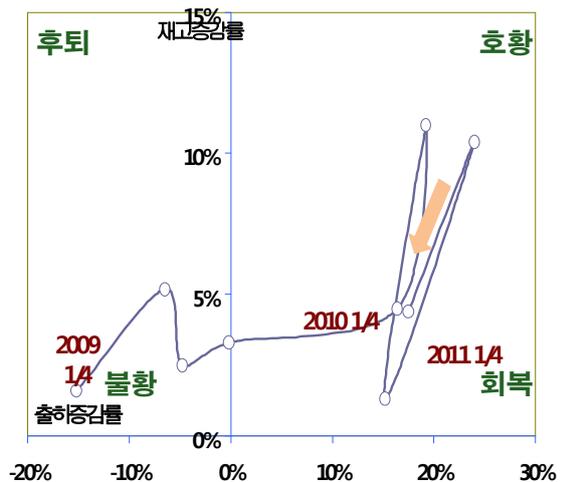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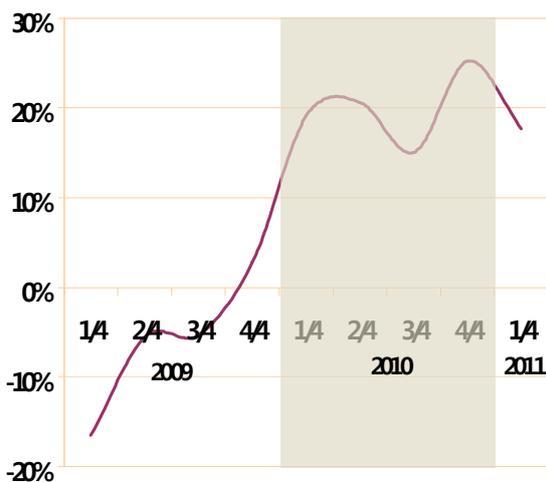
○ (2011년 1/4분기 경기 동향) 내외수 동반 호조로 호황 기조를 유지

- (생산 및 재고·출하) 기계산업은 견고한 생산 증가세가 지속되며 호황 유지
 - 국내외의 경기 회복세 지속으로 기계 수요가 확대되면서 2011년 1/4분기 기계 생산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7.7%를 기록함
 - 기계산업의 재고증가율과 출하증가율도 각각 17.5%, 4.4%를 기록하며 호황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수출입) 특히 신흥국으로의 수출이 확대되면서 기계산업의 수출입도 증가
 - 중국, 아세안, 중남미 국가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국산 중기술(medium tech) 기계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

<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11년 하반기 전망) 기계 산업 경기의 확장세는 이어지겠으나 선진국 시장에서의 큰 폭의 수요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워 산업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

- (기계 산업의 확장세 유지) 국내 및 신흥국의 기계 수요 확대가 지속되면서 생산 및 수출입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다수의 신흥국이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산업 관련 기계 수요가 꾸준히 지속될 전망
- 특히 일본 대지진 사태에 따라 기계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대체재로써 한국산 기계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성장률은 다소 둔화)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하반기부터 기계 산업의 생산 및 수출입 증가율도 둔화될 것

- 2010년에는 강한 경기회복세 및 기저효과로 기계산업이 이례적인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1년에는 미국의 더블딥 우려, 유럽지역의 재정불안, 고유가 등 세계 경제성장을 제한하는 요인들이 부각되고 있음
- 또한 국내와 미국의 건설 경기 침체, 한국 기업의 해외 플랜트 수주 실적 감소로 관련 기계 수요가 감소하여 기계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기계 산업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2011년 기계 산업의 생산 및 수출입 증가율은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

< 기계산업 전망 >

구 분	2009	2010	2011(E)	
			2010년 11월 전망	2011년 6월 전망
생 산 (조원)	73 (△8%)	90 (25%)	101 (13%)	104 (15%)
수 출 (억불)	285 (△18%)	378 (33%)	400 (6%)	445 (18%)
수 입 (억불)	262 (△13%)	332 (27%)	360 (8%)	360 (8%)

자료: 실적치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주요 현안) 주요 현안으로는 스마트기계 수요 증대, 신흥국시장에서의 수출 경쟁 심화, FTA 원산지 논란 확대 등이 예상
 - (스마트 기계 수요 증대) 복잡해진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한' 생산 시스템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스마트 기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연구 및 투자 필요성이 증대
 - 소비자 개성의 다양화, 시장의 글로벌화 등으로 인해 복잡해진 제품 수요를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해결하는 '스마트한' 지능형 생산시스템(IMS: Intelligent Manufacturing System)이 부상하고 있음
 - 또한 최근 들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산업 효율성 제고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생산공정의 스마트화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 (신흥국시장에서의 기계 수출경쟁 심화) 기계 수입시장에서의 신흥국 비중이 확대되면서 중국, 일본, 한국 등 주요 수출국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전세계 기계 수입 시장에서 BRICs를 포함한 신흥성장국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면서 신흥시장의 중요성이 증대됨
 - 중국은 저렴한 기계제품으로 신흥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일본도 신흥국 중심의 수출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신흥국에서의 한국을 비롯한 주요 기계 생산국들 간 수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FTA 원산지 논란 확대)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 국가로의 수출시 원산지 규정 준수 여부에 따른 통상 문제 발생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
 -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시 국내 기업들이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FTA에 따른 원산지 비율 기준, 원산지 증명, 운송 등을 충족해야함
 - 특히 기계 산업은 그 특성상 많은 부품이 존재하고 이들 부품 중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산지 비율 충족 기준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될 것으로 전망됨

③ 자동차산업

신흥 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수출은 견실한 성장세가 전망되나 내수 시장은 한-EU FTA발효에 따른 수입차의 시장 공략 강화로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

○ (2011년 1/4분기 경기 동향) 고유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회복으로 인한 내수 및 수출시장 호조에 힘입어 성장세를 지속

- (생산 및 재고·출하) 국내외 수요 회복, 신차 효과 등에 힘입어 생산은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중

- 자동차산업 생산 지수는 2011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6% 이상 증가함으로써 7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2011년 1/4분기 현재 재고와 출하가 모두 증가하는 호황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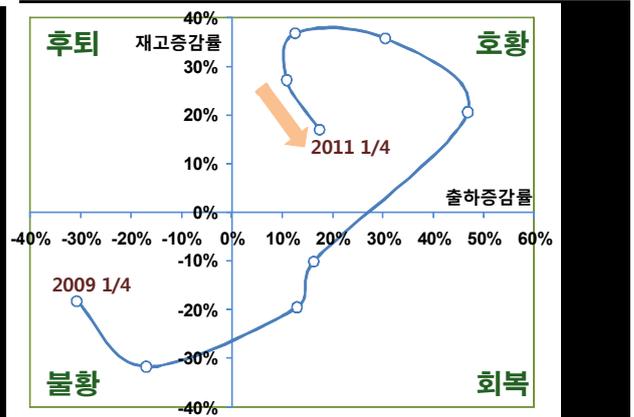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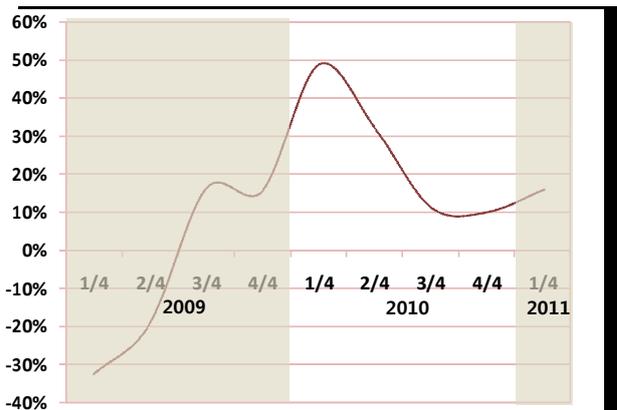
- (수출입) 세계 자동차 수요 증가,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 경쟁사의 생산 부진 등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

- 2011년 1/4분기 자동차 수출 대수는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하였으며 수출 금액은 36% 증가함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11년 하반기 전망) 내수시장에서는 국산차 판매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 시장에서는 높은 수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내수 시장에서의 수입차 점유율 확대) 수입차는 저가 모델 출시의 영향으로 판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국산차 판매량은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베스트셀링카를 앞세운 공격적 마케팅으로 연간 수입차 판매량은 사상 처음으로 10만대를 돌파하고 시장점유율은 8%에 이를 것으로 보임
- 한-EU FTA 발효에 따라 유럽차에 대한 관세가 8%에서 5.6%로 낮아지는 관세인하 효과로 인해 수입차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쉐보레 브랜드 도입 이후 한국 GM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고 쌍용차도 판매가 늘고 있어 국내 생산 기업 간 경쟁은 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 (신흥시장 중심의 수출 호조 지속) 일본 경쟁 업체의 생산 부진 등으로 동구, 중남미 등 신흥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한국산 자동차의 품질과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신흥 시장에 대한 수출은 높은 수준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수출 물량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 시장으로의 수출도 한-EU FTA의 영향에 따라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 자동차산업 전망 >

구 분	2009	2010	2011(E)	
			2010년 11월 전망	2011년 6월 전망
생 산 (만대)	351 (-8%)	427 (22%)	440 (3%)	460 (8%)
내 수 (만대)	139 (21%)	147 (5%)	150 (2%)	150 (2%)
수 출 (만대)	215 (-20%)	277 (29%)	290 (5%)	310 (12%)
수 입 (만대)	6 (-1%)	10 (52%)	11 (14%)	12 (20%)

자료: 실적치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및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내수는 국산차 판매 기준, 수출은 통관 기준, 수입차는 신규 등록 기준.

- (주요 현안) 신흥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하이브리드카 시장 선점 각축, 한-EU FTA 발효에 따른 시장 개방 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
 - (신흥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세계 주요 자동차업체들은 선진국 시장에서의 주요 부진을 대체하여 신흥국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 전 세계 자동차 판매 예상대수인 7,600만대 중 브릭스(BRICs)를 포함한 신흥 시장의 판매 비중은 54%를 넘어설 것으로 보임
 - 신흥시장의 주요 특징은 자동차 보급률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소형차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이에 따라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신흥시장에서 저가 소형차 판매를 강화하면서 선진시장과 신흥시장의 개발전략을 이원화하는 '이중기준'을 적극 도입하는 추세임
 - (하이브리드카 시장 선점 각축)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한 주요 기업간 각축이 치열할 전망
 - 2010년 국내에서 팔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점유율은 약 0.6%에 불과했으나 올해 초부터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최근 출시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은 기존 내연기관 차량들과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고 소비자들의 반응도 개선되고 있음
 - 현대, 기아차가 5월 중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솔린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시하면서 도요타, 렉서스와의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보임
 - (한-EU FTA 발효에 따른 시장 개방) 7월 1일부터 한-EU FTA가 발효되면 유럽시장에 대한 한국산 자동차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유럽산 차의 국내 수입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현행 8%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될 경우 가격인하 효과로 인해 세계 시장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 시장 진출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됨
 - 반면 국내에 수입되는 유럽산 차의 판매 가격도 평균 2~3% 낮아져 유럽산 자동차의 국내 시장 수입침투율도 상승할 것으로 보임

④ 철강산업

2011년 상반기의 철강 수요 증가 추세가 하반기에는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수입 대체 효과로 국내 생산은 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2011년 1/4분기 경기 동향) 생산과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호황 국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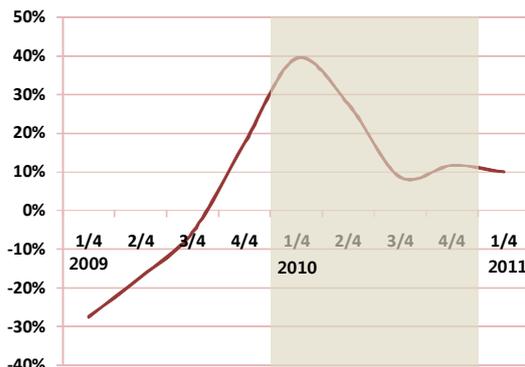
- (생산 및 재고·출하) 생산 증가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재고와 출하가 모두 증가하는 호황 국면에 위치

- 2010년 4/4분기 이후 생산 증가율이 약 10%대에서 횡보하는 국면에 진입함
- 재고와 출하 증가세 모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후퇴 국면으로의 진행 속도가 둔화되고 최근 4분기 연속으로 호황 국면에 위치함

- (수출입) 2011년 1/4분기 철강제품⁹⁾의 수출입액은 전년동기대비 모두 증가하였으나 물량 기준으로는 수출은 25.8% 증가, 수입은 8.9% 감소

< 1차 철강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9) MTI 61 기준.

○ (2011년 하반기 전망) 전반적인 철강 수요 증가의 지속은 불투명하지만 국내 생산의 수입 대체 효과가 커지면서 국내 생산량은 증가가 예상

- (하반기 들어 수요 증가 추세는 둔화) 상반기는 국내외 수요 확대의 영향으로 내수 및 수출의 증가를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수요 둔화의 가능성이 있음
 - 자동차 수출 증가 및 조선 신규 수주 등 전방 산업 호조와 일본의 예상치 못한 수요 발생, 중국 및 선진국의 수요 확대로 내수 및 수출량이 증가함
 - 다만 지난 2개월간 수요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선진국 경기 역시 낙관할 수 없어 하반기의 증가 추세 지속 여부는 불투명함

- (수입은 감소, 생산은 증가) 국내 공급 능력의 확대에 따른 수입 대체 효과 등으로 생산은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크게 감소할 전망

- 국내 철강 업체들의 생산 설비 확충으로 생산량은 증가하는 한편 수입량은 국내 수요 감소 및 수입 대체 효과에 영향을 받아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됨
- 이밖에 중국의 전력 공급 제한에 따른 철강 업체들의 생산량 감소 역시 철강 제품 가격 변화 및 한국의 철강 수입량 감소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철강 산업 전망 >

(단위: 만 톤)

구 분	2009	2010	2011(E)	
			2010년 11월 전망	2011년 6월 전망
총수요	6,595 (-17%)	7,664 (17%)	7,960 (4%)	8,080 (5%)
내수	4,541 (-23%)	5,193 (17%)	5,390 (4%)	5,400 (4%)
수출	2,054 (-1%)	2,471 (17%)	2,570 (4%)	2,680 (8%)
총공급	7,750 (-17%)	9,034 (16%)	9,230 (2%)	9,350 (3%)
생산	5,692 (-12%)	6,535 (18%)	6,730 (3%)	7,090 (8%)
수입	2,058 (-29%)	2,499 (12%)	2,500 (0%)	2,260 (-10%)

자료: 2009년 실적치 및 2010년 추정치는 한국철강협회, 2011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수입량에는 핫코일, 반제품 등 철강재 소재가 포함됨.

○ (주요 현안) 설비 과잉 논란의 재부상, 채산성 문제의 대두, 국내 조선용 후판 시장의 공백 등이 주요 현안으로 작용할 전망

- (설비 과잉 논란의 재부상) 세계 철강 산업의 잠재적 불안 요인인 설비 과잉 문제가 하반기 시장 수요 둔화로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존재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 철강 산업의 생산 시설 과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왔으나 2011년 상반기는 철강 수요 확대로 일시적으로 잠복중임
- 그러나 향후 시장 수요가 부진할 경우 재고 조정 압력으로 설비과잉 문제가 급부상할 우려가 존재함

- (채산성 문제의 대두) 하반기 시장수요가 둔화될 경우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르는 비용 증가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시키기 어려워 업계 내 채산성 확보 문제가 이슈화될 것으로 판단

- 2011년 상반기는 철강재 수요의 증가, 우기(雨期) 동안 생산이 제한된 주요 철강 원재료 생산국의 계절적 요인 등이 맞물리며 원재료 가격이 급등함
- 이에 따라 제품의 톤당 마진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향후 환율 변화 및 원재료 공급 가격 협상 결과 등이 마진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향후 철강 수요가 둔화될 경우 원재료 가격 변화의 제품 가격 전가가 어려워져 철강 업계 전반에 채산성 확보 문제가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됨

- (국내 조선용 후판 시장의 공백) 국내 조선용 후판 시장에 일본산 제품의 공급이 제한됨에 따라 한국 업체에게는 공급 능력을 검증받는 기회로 작용

- 동북(東北) 대지진에 따른 일본 철강 업체의 조선용 후판 생산의 차질로 한국 철강 제조업체들의 후판 공급 증가가 예상됨
- 조선용 후판은 크기, 형태 등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제품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급자의 생산 및 공급 경험이 필수적임
- 이에 따라 그동안 조선용 후판 공급에서 소외되었던 한국의 관련 업체들에게는 일본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 능력의 검증 기회가 될 수 있음

⑤ 석유화학산업

하반기에는 신흥국 중심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와 전반 산업의 경기 호조에 의한 내수 증가로 전반적인 업종 성장세가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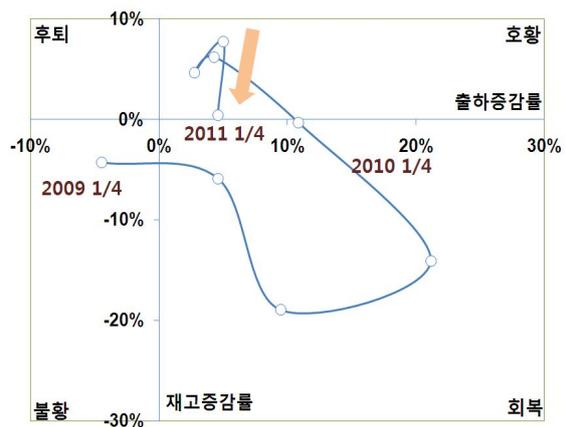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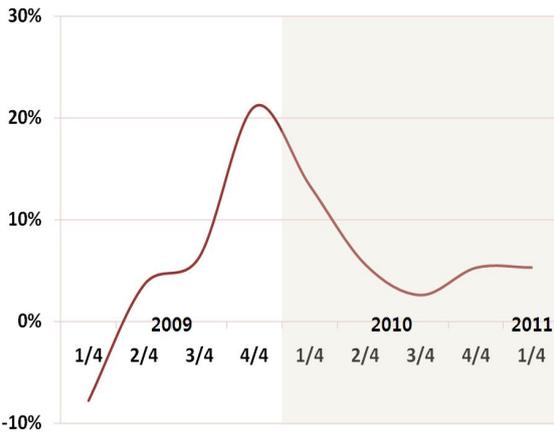
○ (2011년 1/4분기 경기동향) 내수 회복과 수출 경기 호조로 석유화학산업 경기는 호황을 지속

- (생산 및 재고·출하) 석유화학산업 생산 증가율은 2010년 4/4분기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재고 증가율이 빠르게 하락

- 2010년 크게 둔화되었던 석유화학산업 생산 증가율은 소폭 상승하여 2011년 1/4분기 5.3%를 기록함
- 한편 2011년 1/4분기는 재고-출하 사이클상 호황 국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재고 증가율이 미약하여 경기 후퇴 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수출입) 2011년 1/4분기 석유화학제품 수출 물량은 전년동기대비 3.3% 증가 하였으나 고유가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으로 수출 금액은 27.6% 증가함¹⁰⁾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출하 사이클)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10) MTI 코드 21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을 의미함.

○ (2011년 하반기 전망) 신흥국 중심의 세계 경제 회복의 영향으로 수출 중심의 경기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국내 석유화학 제품 수요 증가) 전방산업의 수출 호조에 따라 하반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는 증가할 전망

· 신흥국 주도의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국내 자동차, IT 산업 등 전방산업 수출 증가로 인해 석유화학제품의 국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신흥국으로의 수출 경기 호조) 글로벌 초과공급 해소와 신흥국 성장 지속에 따른 수요 증가로 석유화학제품 수출 회복세 지속이 예상

· 중동 및 중국의 신규 공급 증가로 2010년 수출 경기가 악화되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증설 프로젝트 취소 및 지연으로 인해 2011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초과공급은 해소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선진국의 더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 중심의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수출 경기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석유화학산업 전망 >

구 분	2009	2010	2011(E)	
			2010년 11월 전망	2011년 6월 전망
생 산 (만톤)	2,086.9 (7%)	2,136.3 (2%)	2,250 (5%)	2,270 (6%)
수 출 (만톤)	1,211.7 (12%)	1,182.1 (-2%)	1,250 (6%)	1,270 (7%)
수 입 (만톤)	77.6 (6%)	85.1 (10%)	100 (18%)	100 (18%)
내 수 (만톤)	952.8 (2%)	1025.4 (8%)	1,100 (7%)	1,100 (7%)

자료: 실적치는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1)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석유화학 산업 전망은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의 합으로 산출함.

○ (주요 현안) 글로벌 수요 부진 가능성 상존,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 친환경 화학제품 개발 필요성 대두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수요 부진 가능성 상존) 유럽 재정위기 및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수요가 둔화될 우려가 존재

- 세계 경기는 유럽 재정위기 확산 및 중국의 긴축정책에 따른 중국 경제의 내수 둔화 가능성 등 침체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석유화학산업은 제조업의 기초 소재인 제품의 특성상 세계 경기 변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 특히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수출 비중이 50% 수준으로 높고 범용성 제품 생산 비중이 높아 세계 경제성장 둔화가 현실화 될 경우 침체가 불가피함

-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 중국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 심화 및 원화 강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등 대외 무역 환경 악화가 예상

- 2010년 중국과 대만이 체결한 ECFA(경제협력기본협정) 효과에 따라 국내 기업의 대중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며,
- 범용성 제품에서 중동산 제품 수출 증가 및 중국의 범용제품 자급률이 크게 상승하는 등 중국시장에서의 경쟁 강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더욱이 원화가치 상승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가격 경쟁력 약화 및 기업 채산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 (친환경 화학제품 개발 필요성 대두)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소재 등 탄소배출 관리를 위한 친환경 화학제품 개발과 탄소저감 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

- 멕시코 칸쿤(Cancún) 합의 이후 탄소배출권 시장이 다시 주목 받고 있어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 온실가스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이에 국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제도 시행이 가시화되어 하반기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 생산과정 중 탄소배출 관리를 위한 친환경 화학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이와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소재, 탄소저감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⑥ 해운업

2011년 하반기 전반적인 해운 경기는 공급과잉의 영향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이나 컨테이너 부문만은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2011년 1/4분기 경기 동향) 최근 외형상 업종 경기 회복세는 지속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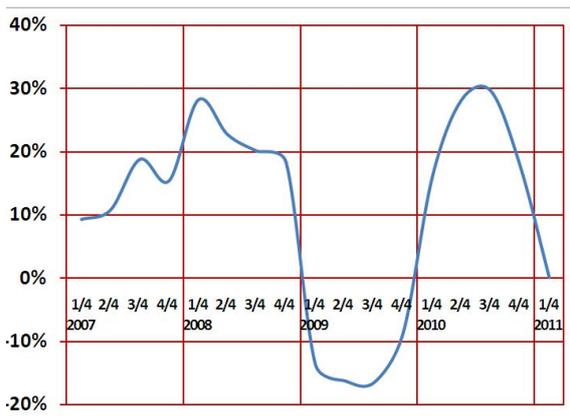
- (생산) 1/4분기 외항운송업 생산지수 증가율은 전년동기 호조에 따르는 기저 효과로 하락

-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외항운송업 생산지수 증가율은 2010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1년 1/4분기에는 0.1%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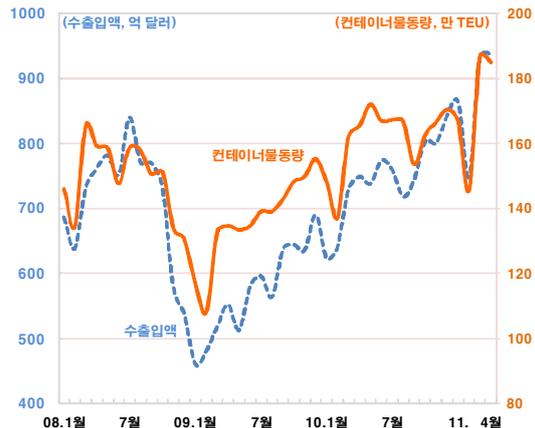
- (컨테이너 물동량) 컨테이너 물동량은 수출경기 호조로 높은 수준 기록

- 전국 항만의 4월 컨테이너 물동량은 184만 8,000 TEU로 전년동기인 2010년 4월의 165만 2,000 TEU 대비 11.8% 증가¹¹⁾
- 이는 역대 월별 물동량으로는 지난 3월에 이은 두 번째로, 2개월 연속 180만 TEU를 상회하고 있음 (올해 1~4월까지 연간으로 약 12% 증가)

< 외항운송업 생산지수 증감률 >



< 컨테이너물동량 및 수출입액 추이 >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국토해양부.
 주: 생산지수 증감률은 전년 동기대비 기준.

11)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는 선박의 용적을 나타내는 단위이며 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의미.

○ (2011년 하반기 전망) 컨테이너선 부문은 회복세 지속이 예상되나 벌크선 및 유조선은 초과공급 압력 지속으로 경기 부진이 전망

- (컨테이너선) 컨테이너 부문 시장의 초과공급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업종 경기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최근 HRI는 1월 5일 694.6으로 시작하여 커다란 기복 없는 상승세를 이어나가 4월 27일 904.8에 도달함
- 이는 금융위기 직전 최고치인 2007년 9월 26일에 기록한 1,406.2의 64.3%수준에 이르는 수준임

- (벌크선) 벌크선 부문의 주요 수요국인 중국 수요 부진 우려 가능성 대두

- BDI는 1월 4일 1,693으로 시작하여 2월 4일 1,043까지 떨어진 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5월 4일 현재 1,302로 근래 최고치인 2007년 11월 13일의 11,039의 14.8% 수준임
- 특히, 중국이 수출보다 내수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점은 벌크선 시장 수요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유조선) 초과 공급 지속으로 업종 경기의 빠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AG-동아시아항로운임지수(WS)는 1월 10일 48로 시작해서 등락을 거듭하다 5월 2일 48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근래 최고치인 2008년 첫째 주에 기록한 234의 20.5%수준임

< 주요 해운지수 전망 >

구 분	2009	2010	2011(E)	
			2010년 11월 전망	2011년 6월 전망
벌크선 [BDI (1985=1,000)]	2,617 (△59%)	2,761 (6%)	2,800 (1%)	1,500 (△46%)
컨테이너선 [HRI (1997=1,000)]	366 (△68%)	553 (51%)	650 (17%)	900 (63%)
유조선 [AG-동아시아(WS)]	42 (△69%)	69 (64%)	80 (16%)	50 (△27%)

자료: 실적치는 해양수산개발원,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위 수치들은 기간중 평균치임.

- (주요 현안) 하반기 해운업에는 선박의 경제적인 운용 필요성 대두, 해운거래의 활성화, 로테르담 해운 규칙의 발효 등이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
 - (선박의 경제적인 운용 필요성 대두) 유가상승과 시장불안정으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를 선박의 경제적인 운용을 통해 돌파해야 될 필요성이 증대
 -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와 개발도상국의 수요증진으로 인해 높아진 유가가 당분간 하락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 비용 측면에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함
 - 선박을 항로별로 최단거리를 최적의 속도 곧, 경제속도로 운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료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연료 또한 기항스케줄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저렴한 곳을 골라 공급받을 수 있는 업계의 자구책 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임
 - (해운거래의 활성화) 2011년 부산에 국제해운거래소의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이를 활용하기 위한 국내 해운 업계의 대응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전 세계적으로 선박과 관련된 매매, 중계, 금융, 보험 등은 북유럽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지만 한국에서도 이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함
 - 이에 따라 국내 업계는 필요인력을 확충하고 선진국의 관련기업들을 벤치마킹하는 등 그동안 화물수송에 치중해왔던 영업방식을 선박거래를 통해 다변화할 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보임
 - (로테르담 해운 규칙의 발효) 2010년 로테르담 규칙이 새로운 해운관련 국제협약의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해운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그동안 해운업은 'Hague Rules'(1924), 'Hague-Visby Rules'(1968), 'Hamburg Rules'(1978) 그리고 각국 상법의 적용을 받아옴
 - 2008년 이를 현대화하고 통합할 목적으로 'Rotterdam Rules'이 만들어지고 2010년 국제협약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함
 - '로테르담 규칙'은 화주와 선주의 입장이 동시에 강화되면서 새로운 개념들이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업계의 준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⑦ 물류택배업

2011년 하반기 택배 산업은 시장 수요는 예년 수준의 성장을 보일 것이나 공급 측면에서 과당 경쟁으로 업계의 수익성은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2011년 1/4분기 경기 동향) 소비 둔화로 소화물전문운송업(택배) 경기 하강

- (생산) 육상운송업 생산지수 증가율은 상승세인 반면 소화물전문운송업 생산지수 증가율은 하락세를 보이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

- 육상운송업의 생산지수는 2011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0.4% 증가해 2010년 3/4분기 이후 2분기 연속해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소화물 전문 운송업의 생산지수는 2011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8.4% 증가했으나, 2010년 1/4분기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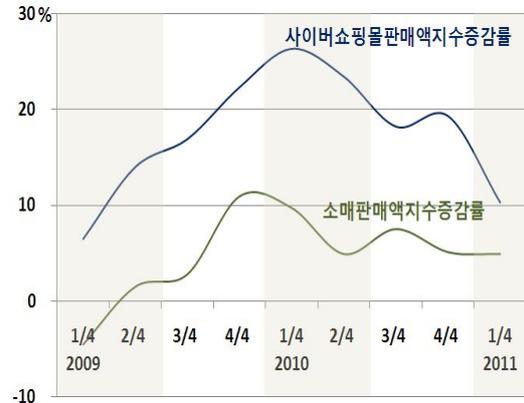
- (수요시장) 사이버쇼핑몰의 경기가 급감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

- 사이버쇼핑몰판매액지수 증가율은 2011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0.3%를 나타내어 2010년 1/4분기 26.3%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모습임
- 전반적인 소비 동향을 파악해 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증가세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 육상·소화물전문 운송업 생산지수 증감률 >



< 소매판매액지수 증감률 >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주: 업종 생산지수, 판매액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불변지수 기준.

- (2011년 하반기 전망) 시장 수요는 예년 수준의 성장을 보일 것이나 공급 측면에서 과당 경쟁으로 업계의 수익성은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시장규모 증가세 지속) 2011년 택배시장규모는 전년대비 최대 약 14% 증가한 3.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 2010년 전년대비 15%의 높은 성장을 보였던 택배시장은 금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소비 둔화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전년대비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고물가의 영향으로 무점포 업체의 이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일 수도 있음
- (무점포 판매업 매출증가율 예년 수준 유지) 사이버쇼핑몰, 홈쇼핑 등 무점포판매 업체의 매출증가율이 예년 수준과 비슷한 14%대 예상
 - 무점포판매 업체의 매출은 지난 3년간 연평균 약 14%씩 성장해 오고 있으며, 2011년 1/4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13.8% 증가(8.4조원)하는 실적을 기록함
- (시장 경쟁 격화) 단가 및 점유율확보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규모 대형화, 서비스의 차별화 및 고급화를 위한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
 - 하반기 대한통운의 매각에 따라 물류택배업은 더욱 치열한 시장 점유율 경쟁이 예상됨
 - 이에 따라 업계는 시설투자 확대보다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단가 하락을 억제하는 마케팅 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물류(택배)업 전망 >

(단위: 100억원)

구 분	2009	2010	2011(E)	
			2010년 11월 전망	2011년 6월 전망
택배시장 규모	285	333	376	380
(전년대비증감률)	(10%)	(17%)	(13%)	(14%)

자료: 실적치는 물류신문사,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 (주요 현안) 정부의 물류산업 선진화 추진, 외형 경쟁 및 대기업의 시장 진출, 글로벌 사업 비중 확대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될 전망
 - (정부의 물류산업 선진화 추진) 최근 확정된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실행계획 수립을 비롯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추진중
 - 4월 11일 확정, 고시된 「국가물류기본계획 2차 수정계획」의 5대 추진전략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 하반기 수립될 계획임
 - 6월 15일 운송사업자 직접화물운송 의무비율제, 위탁화물 관리책임제, 우수업체인증제 등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됨
 - 상기 정책 과제 및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의 논란이 예상되고, 물류택배업의 시장 및 경쟁구조에 변혁이 초래됨
 - (외형 경쟁 및 대기업의 시장 진출) 일부 대형업체간에 시장점유율 차이가 크지 않은 과점적 시장 구조속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한통운 매각은 업체간 외형 경쟁을 더욱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
 - 현재 대한통운 매각 입찰 참여 업체중 누가 인수하든 대한통운은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어 단가 경쟁 및 외형 확대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으로 대형업체들은 고객 차별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단가 현실화를 유도하는 활동도 강화될 것으로 보임
 - (글로벌 사업 비중 확대) 외형 성장에 반해 수익성이 한계에 다다른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대형업체들은 글로벌 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
 - 기존 대형 업체들은 중국, 인도, 태국 등 동남아 국가를 비롯한 국제특송서비스, 중량화물운송서비스, 글로벌 3자 물류를 비롯해 현지에서 직접 택배사업을 추진중
 - 특히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해운, 항공, 육운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물류사업 전개를 목표로하고 있음

⑧ IT제조업

2011년 하반기 IT제조업은 완제품 수요가 증가가 완만히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반도체 경기는 2011년 하반기에나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됨

○ (2011년 1/4분기 경기 동향) 호황 국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 강도는 약화

- (생산 및 재고·출하) IT제조업은 경기 호황 국면에 있으나 생산 증가율이 둔화되고 재고-출하 사이클 상 경기 호조세가 약화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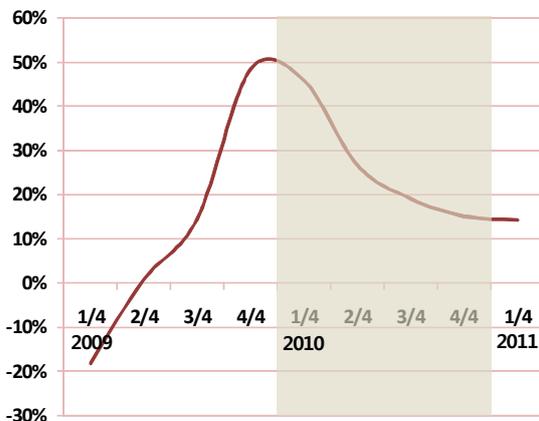
- 제조업 ICT 생산지수는 2009년 4/4분기를 정점으로 2010년 1/4분기 이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임
- 재고증감률이 2010년 3/4분기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10년 기저효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업종별 경기) 정보통신 완제품의 수요는 스마트 폰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으나 반도체 경기는 2010년 하반기에 하락세를 시현

- 스마트폰 시장의 활성화와 국내 기업들의 공격적인 생산 전략으로 인해 휴대폰 판매가 더욱 급성장하고 있음
- 그러나 메모리반도체와 패널 업종의 경우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IT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11년 하반기 전망) 완제품 수요의 증가 등으로 생산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반도체 부문의 시장 내 경쟁 심화로 경기 둔화가 전망

- (완제품 수요 지속 증가) 완제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나 신규 진입업체와 기존 업체 간의 가격 경쟁 심화로 수익성 악화 우려

- 휴대폰은 스마트폰 가격 경쟁력 강화와 세계 2위의 제조기반을 바탕으로 생산과 수출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며, 차별화된 스마트폰 포지셔닝 전략 추진 등으로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될 전망이다
- 태블릿PC 등 스마트 디바이스의 경우 2011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관련된 패널, 센서 등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반도체 경기 하강과 LCD 패널 가격 상승) 반도체 경기 하강이 우려되는 반면 패널은 최근 가격 상승으로 경기 소폭 반등이 예상

- 반도체 재고 증가율이 바닥을 확인하는 단계지만 세계 시장의 정체로 생산과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LCD 부문은 5월 들어 LCD 패널가격이 상승하고 6월에도 포함세를 유지하는 등 1분기 적자 이후 2011년 상반기를 저점으로 상승 사이클이 예상됨

< IT제조업 전망 >

구 분	2009	2010	2011(E)	
			2010년 11월 전망	2011년 6월 전망
생산 (조 원)	227 (1%)	284 (25%)	340 (20%)	330 (16%)
수출 (억 달러)	1,210 (-8%)	1,539 (27%)	1,800 (17%)	1,700 (10%)
수입 (억 달러)	620 (-19%)	756 (22%)	800 (6%)	800 (6%)

자료: 실적치는 지식경제부 및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1)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IT 제조 산업은 반도체 등 부품산업과 정보통신, 컴퓨터 등 완제품 산업을 합친 것임.

○ (주요 현안) IT 산업에는 반도체의 신 강자 등장, 2차 스마트폰 전쟁 발발, 클라우드 서비스 유료화 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

- (반도체의 신 강자 등장) 삼성전자가 19년 만에 일본 엘피다에게 반도체 기술혁신 1위 자리를 내줄 위기에 처하면서 하반기부터 치열한 경쟁이 예상

- 경영실적은 철저하게 반도체 신제품을 출시한 순서에 따라 결정되는 반도체 시장의 특징에 따라 삼성전자는 지난 1992년 이후로 강자의 위치를 고수함
- 그러나 최근 일본의 엘피다가 20나노 D램 반도체 개발을 삼성전자보다 먼저 발표함으로써 세계 반도체 시장의 지각 변동 가능성이 대두됨

- (2차 스마트폰 전쟁 발발) 애플의 독점적 지위의 변화가 예상되면서 애플사와 애플사들 간의 제품 차별화 경쟁으로 격화될 전망

- 애플을 제외할 경우 동일 운영체제(안드로이드 OS)와 비슷한 크기 대화면(4.3인치)이 대세가 된 시장에서, 듀얼코어 등 더 빠른 속도 구현을 위한 경쟁 등 업체 간 차별 요소 부각 노력이 격화되고 있음
-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 출시된 삼성전자의 차세대 핵심 스마트폰의 판매 돌풍 등으로 안드로이드 폰들은 2011년 하반기에는 경쟁력을 회복하고 스마트폰 시장의 2차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클라우드 서비스 유료화)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음악·영화 등을 저장해놓고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료화를 통해 새로운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애플은 아이폰·아이패드 등 애플 단말기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이클라우드를 새로 선보임
- 이는 모든 디지털 기기에서 데이터 호환이 가능토록 하는 초대형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임
- 특히, 그동안 무료였던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료화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삼성·애플 등 IT 강자들의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 경쟁이 격화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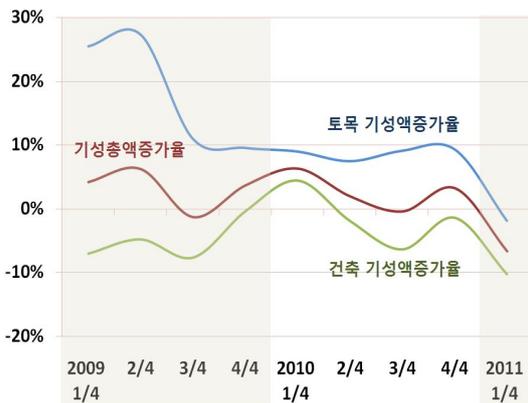
⑨ 건설업

2011년 공공부문 건설수주는 전년 규모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건축 부문 수주는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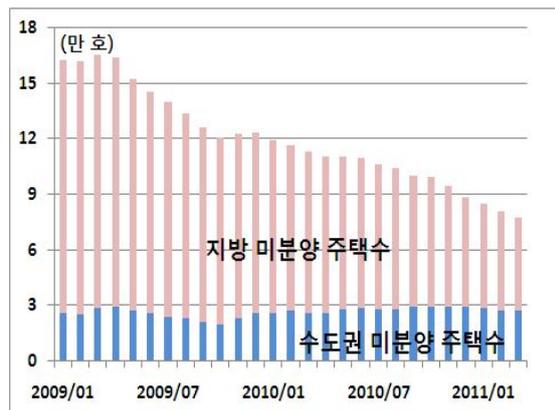
○ (2011년 1/4분기 경기 동향)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의 장기화 지속

- (건설기성) 건설경기 동향지표인 건설기성액¹²⁾이 모든 부문에서 감소
 - 건설기성액 증가율은 2010년 4/4분기에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건축 부문과 더불어 토목 부문도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 (미분양 주택 시장)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는 빠르게 해소중이나 수도권 미분양 주택 문제 지속
 - 전체 미분양 주택수는 2009년 3월 16만여호를 정점으로 하락하여 2011년 3월 현재 약 7만여호 수준으로 감소함
 - 그러나 지역별로는 지방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나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큰 변화가 없음

< 공종별 건설기성액 증감률 >



< 미분양주택수 >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국토해양부.
 주: 기성액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12) 건설기성액은 업체의 실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공사대금의 청구나 수취여부와 무관하며 공사비 중 지가를 제외하고 발주자공급원자재비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임(통계청).

○ (2011년 하반기 전망) 2011년 공공부문 건설수주는 전년 규모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건축 부문 수주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공공·토목 부진 지속) SOC 예산 감축 등에 따라 공공 수주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우나 계속 사업 추진 등으로 전년도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

· 2011년 SOC 예산은 전년대비 2.7% 감소하고, 신규 사업 보다는 계속 사업 중심으로 배분되어 공공·토목 부문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4대강 사업 예산도 전년대비 0.1조원 감소한 3.1조원으로 공공·토목 부문의 수주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민간·건축 침체) 공공부문의 보금자리주택 보급, 공공관리자 제도 시행 등으로 민간·건축 경기의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청사건립 공사 발주 등의 영향으로 비주거용 건축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강남·위례·미사 지구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이 민간·주택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임

· 또한 서울시의 공공관리자 제도¹³⁾ 시행의 영향으로 재개발·재건축 수주가 둔화되어 민간·건축 부문의 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건설업 전망 (건설수주액) >

(단위 : 조 원)

		2009	2010	2011(E)	
				2010년 11월 전망	2011 6월 전망
주체별	공공	51 (63%)	29 (△44%)	30 (3%)	29 (0%)
	민간	53 (△20%)	55 (3%)	60 (9%)	54 (△1%)
공종별	토목	49 (44%)	35 (△29%)	35 (0%)	35 (1%)
	건축	60 (△14%)	54 (△10%)	56 (3%)	55 (△2%)
전체		109 (5%)	89 (△19%)	91 (2%)	88 (△1%)

자료: 실적치는 통계청,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주체별 수주에서 국내외기관 및 민자 실적을 제외하였으며,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13) 공공관리자제도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계획수립부터 사업완료 단계까지 사업 진행을 구청장, 한국주택공사 등 공공관리자가 주도하여 사업비 감소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임.

- (주요 현안) 높은 부채비율 및 자금난에 의한 유동성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수익성 악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 출현에 따른 혼란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
 - (높은 부채비율 및 자금난에 따른 유동성 위기) 건설업계의 높은 부채비율 및 자금난 등으로 금융권의 PF 대출 회수가 현실화될 경우 유동성 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국내 100대 건설사의 평균부채비율은 170%, PF지급보증을 포함하면 202%를 기록하고 있어¹⁴⁾ 부채 상환 압력 등 자금난이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융권에서 PF 대출 등의 자금 회수를 요구하면 유동성 위기 가능성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수익성 악화) 국제원자재가 상승, 인플레이션 심화, 금리 인상 등으로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
 - 철광석,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인상이 철강 등 건설자재 가격으로 전이되어 건설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임금 및 금리 인상을 유발하여 건설업계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수익구조를 악화시킬 것으로 보임
 - 건설업계의 수익구조 악화가 지속될 경우 자금난이 심각한 부실 건설사의 퇴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 출현에 따른 혼란) 부동산 시장 침체를 돌파하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
 - 5월에는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 부실 PF 처리 방안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도세 비과세 등 세제 완화 정책을 마련함
 - 이와 같이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은 건설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정책 마련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HRI**

14) 2010년말 기준, 조선일보 2011년 4월 27일.

산업별 담당 연구원

【총괄】	한상완 산업연구본부장 (swhan@hri.co.kr, 02-2072-6230)
	주원 연구위원 (juwon@hri.co.kr, 02-2072-6235)
【조선업·해운업】	예상한 연구위원 (syeahk@hri.co.kr, 02-2072-6232)
【기계산업】	전해영 연구원 (haloween@hri.co.kr, 02-2072-6241)
【자동차산업】	장우석 연구위원 (jangws@hri.co.kr, 02-2072-6237)
【철강산업】	김필수 선임연구원 (phil7941@hri.co.kr, 02-2072-6238)
【석유화학산업】	조규림 연구원 (jogyurim@hri.co.kr, 02-2072-6240)
【물류택배업】	이장균 수석연구위원 (johnlee@hri.co.kr, 02-2072-6231)
【IT제조업】	장후석 연구위원 (chahus@hri.co.kr, 02-2072-6234)
【건설업】	이원형 연구위원 (lee@hri.co.kr, 02-2072-6233)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구 분		2008	2009 ^P	2010 ^P					2011		
				1/4	2/4	3/4	4/4	연간	1/4	연간 ^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2.3	0.3	8.5	7.5	4.4	4.7	6.2	4.2	4.3	
	민간소비 (%)	1.3	0.0	6.6	3.5	3.6	2.9	4.1	2.8	3.8	
	건설투자 (%)	-2.8	3.4	4.3	-2.3	-3.1	-2.9	-1.4	-11.9	1.5	
	설비투자 (%)	-1.0	-9.8	29.1	30.5	26.6	15.9	25.0	11.7	8.5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	32	328	3	89	99	92	282	27	197	
	통관기준	무역수지 (억 \$)	-133	404	29	146	106	130	412	80	304
		수출 (억 \$)	4,220	3,635	1,011	1,202	1,163	1,287	4,664	1,313	5,168
		증감률 (%)	(13.6)	(-13.9)	(35.8)	(33.1)	(22.7)	(23.8)	(28.3)	(29.9)	(10.8)
		수입 (억 \$)	4,353	3,231	982	1,056	1,507	1,157	4,252	1,233	4,864
증감률 (%)	(22.0)	(-25.8)	(37.4)	(42.8)	(24.6)	(24.6)	(31.6)	(25.6)	(14.4)		
소비자물가 상승률 (%)		4.7	2.8	2.7	2.6	2.9	3.6	2.9	4.5	3.0	
실업률 (%)		3.2	3.6	4.7	3.5	3.5	3.3	3.7	4.2	3.5	
국제유가 (평균, Dubai, \$/배럴)		94	62	76	78	74	82	78	101	88.7	
웬달러 환율(평균, 원)		1,103	1,276	1,143	1,165	1,184	1,132	1,156	1,120	1,090	

주: P(Preliminary)는 잠정실적치, E(Expectation)는 전망치.